

## 보도자료

2011년 4월 13일(수)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국제협력관실 국제기구담당관 전영만 과장(☎750-1730)  
국제기구담당관 이은희 사무관(☎750-1732) ehlee@kcc.go.kr

# 한국, WEF 네트워크준비지수 10위권 재진입

- 한국은 작년 15위에서 5단계 상승한 10위를 차지 -

세계경제포럼(WEF, World Economic Forum)은 4월 12일 24시(한국 시간) 각국의 ICT 발전도와 경쟁력을 평가한 네트워크 준비지수(NRI, Networked Readiness Index) 결과를 발표하였다. 우리나라는 '10년 세계 133개국 중 15위에서 5단계 상승하여 세계 138개국 중 10위를 차지하였다.

※ 우리나라는 2007년 122개국 중 19위, 2008년 127개국 중 9위, 2009년 134개국 중 11위, 2010년 133개국 중 15위를 차지한 바 있음

WEF 네트워크 준비지수는 '각국이 ICT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가'를 나타내는 지수로, 일반적 의미의 정보통신 뿐 아니라 그 나라의 정치·행정적 규제, 일반 시장환경 및 입법효율성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평가지수이다.

※ NRI는 ① 각국의 시장, 규제, 인프라 등 환경(Environment), ② 개인·기업·정부의 ICT 이용 준비도(Readiness), ③ 실제 ICT 활용(Usage) 등 3대 분야에서 71개 세부항목을 평가

금년도 네트워크 준비지수 평가에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스웨덴이 1위를 차지하였다. 한편, 아시아 국가들 중 일본은 19위(전년대비 2단계 상승), 중국은 36위(전년대비 1단계 상승)로 전년도에 비해 순위가 상승되었으나 우리나라보다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.

우리나라는 작년보다 5단계 상승하여 평가대상 138개국 중 10위를 차지하였다. 3대 부문별로는 ICT 이용 준비도 순위가 전년대비 4단계 상승(21위→17위)하여 종합순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, 환경(27위)과 활용도(1위) 부문 순위는 전년과 동일하였다.

세부 항목별로는 인터넷&전화 시장 경쟁률(1위), 가정용전화 설치비(1위), 정부의 온라인서비스 지수(1위), 데이터 이용가능 이동전화 가입건수(5위) 등 ICT 분야 평가 항목이 대체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.

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, WEF측이 금번 순위 발표에서 북유럽 국가들과 한국 등 아시아의 호랑이들이 정보통신 리더쉽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, 이는 우리나라의 ICT이용을 위한 준비도와 ICT활용도가 세계적으로 우수함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. 끝.

< 붙임1 >

## WEF 네트워크 준비지수 개요 및 평가결과

### □ WEF 네트워크 준비지수(Networked Readiness Index) 개요

- 세계경제포럼(WEF, World Economic Forum)이 국가의 ICT 발전도와 경쟁력을 ICT환경, 준비도, 활용도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한 지수

### □ 평가 체계

- 3개 부문, 71개 항목(정량 : 32개, 설문 : 39개)을 기준으로 평가하며, 정치, 규제, 시장환경 등 非 ICT 분야의 항목을 포함 (ICT분야 비율 55%)
  - 각 부문, 세부지표 가중치는 1/3로 모두 동일하며, 지표별로 1~7점 기준으로 지수 산출
  - 정량지표(32개)는 ITU, World Bank, UN 등 국제기구 공식통계를 이용
  - 정성지표(39개)는 최고경영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

※ 국내 설문조사는 WEF 협력기관인 KAIST 경영대학원에서 실시

- (조사대상)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과정생 및 동문 중 고위경영자 약 400여명
- (설문기간 및 방법) 2010년 4월 ~ 5월(1개월) / 우편설문

#### < WEF 네트워크 준비지수 부문별 지표 및 평가방법 >

부 문	가중치	세부항목	지표 구성	평가 방법	지표 순위		비고
					'10	'11	
환 경 (27위 → 27위)	33%	시장 환경	10개	정량:13 정성:18	43	53	(↓10)
		정치·규제 환경	11개		38	41	(↓3)
		인프라 환경	10개		17	15	(↑2)
준비도 (21위 → 17위) (↑4)	33%	개 인	9개	정량: 9 정성:11	29	19	(↑10)
		기 업	8개		20	16	(↑4)
		정 부	3개		15	22	(↓7)
활용도 (1위 → 1위)	33%	개 인	8개	정량:10 정성:10	13	4	(↑9)
		기 업	8개		5	2	(↑3)
		정 부	4개		1	1	( - )

< 붙임2 >

## '11년도 WEF 네트워크 준비지수 상위 50개국

순위	국가명	변동	순위	국가명	변동
1	스웨덴	( - )	26	에스토니아	(↓1)
2	싱가폴	( - )	27	몰 타	(↓1)
3	핀란드	(↑3)	28	말레이시아	(↓1)
4	스위스	( - )	29	아일랜드	(↓5)
5	미 국	( - )	30	바레인	(↓1)
6	대 만	(↑5)	31	키프로스	(↑1)
7	덴마크	(↓4)	32	포르투갈	(↑1)
8	캐나다	(↓1)	33	사우디아라비아	(↑5)
9	노르웨이	(↑1)	34	슬로베니아	(↓3)
10	한 국	(↑5)	35	튀니지	(↑4)
11	네덜란드	(↓2)	36	중 국	(↑1)
12	홍 콩	(↓4)	37	스페인	(↓3)
13	독 일	(↑1)	38	바베이도스	(↓3)
14	룩셈부르크	(↑3)	39	칠 레	(↑1)
15	영 국	(↓2)	40	체 코	(↓4)
16	아이슬란드	(↓4)	41	오 만	(↑9)
17	호 주	(↓1)	42	리투아니아	(↓1)
18	뉴질랜드	(↑1)	43	푸에르토리코	(↑2)
19	일 본	(↑2)	44	몬테네그로	(↓2)
20	프랑스	(↓2)	45	우르과이	(↑12)
21	오스트리아	(↓1)	46	코스타리카	(↑3)
22	이스라엘	(↑6)	47	모리타니	(↑6)
23	벨기에	(↓1)	48	인 도	(↓5)
24	아랍에미리트	(↓1)	49	헝가리	(↓3)
25	카타르	(↑5)	50	요르단	(↓6)